

## 서사문(겪은 일) 쓰기 지도

수업목표 : 서사문 쓰기가 중요한 까닭을 이해한다.  
서사문 쓰기 지도 방법을 안다.

수업내용 : 갈래별 글쓰기 가운데 왜 서사문 쓰기가 중요한 가를 알아보고, 서사문 쓰기 지도 방법을 살펴본다.

목차 : 1. 서사문이란

2. 생활문과 서사문 (겪은 일 쓰기)

3. 왜 겪은 일 쓰기 지도가 중요할까

4. 겪은 일 쓰기, 어떻게 쓸까

(1)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잘 떠올려 가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찌하였다.’는 여섯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쓴다

(2) 중심을 정해서 쓴다

(3) 실감나게 쓴다 (자세히 쓰기, 정확하게 쓰기, 자기 감각으로 표현하기)

(4) 설명보다 그려보이듯 쓴다

(5) 한 말, 들은 말, 주고 받은 말도 그대로 쓴다

(6) 한 일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낀 것도 쓴다

5. 아이들 마음 읽어주기

6. 삶을 구체로 쓰는 힘, 그 기쁨 - 정직한 글에서 가치 있는 글로

# 갈래별 글쓰기 지도 1 - 서사문 (겪은 일 쓰기)

나명희

## 1. 서사문이란

‘어떤 일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식으로 나타내는 글’이 바로 서사문이다. 그런데 아이들과 공부를 할 때는 ‘서사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겪은 일 쓰기’라고 풀어 말해주는 것이 좋다.

## 2. 생활문과 겪은 일 쓰기

‘생활문’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글감을 찾아서 형식에 위배되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글감을 찾아 글을 쓰는데, 느낌이나 생각이 중심이 되는 감상문으로도 쓸 수 있고, 설명하는 글로도 쓸 수 있고, 주장하는 글로도 쓸 수 있다. 물론 사건을 중심으로 글을 펼쳐나갈 수도 있다. 곧 생활 속에서 글감을 찾아 쓰는 이런저런 갈래의 모든 글을 통틀어 ‘생활문’이라고 하고, ‘겪은 일 쓰기’는 생활에서 잡은 글감을 생각이나 느낌보다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한 대로, 겪은 대로 쓰는 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활문은 ‘무엇’을 쓰는가, 만을 두고 붙인 이름이고, 겪은 일 쓰기는 ‘어떻게’ 쓰는가, 까지 살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왜 겪은 일 쓰기 지도가 중요할까?

겪은 일 쓰기 지도의 목표는 사실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쓰게 하는 데 있다. 사실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쓰려면 먼저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듣고 볼 줄 알아야 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감각을 모두 동원하여 사태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객관 세계, 삶 속에서 부딪치는 사물이나 사건, 곧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겪은 일 쓰기 지도에서 학습 목표가 되겠다. 이런 바탕이 되어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느낌을 강조하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라 해도 제대로 된 느낌이나 자기 것이 된 의견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건을, 사물을 정확히 객관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만 옳고 그름도 정확하게 가릴 수 있고, 제 자신의 모습 또한 객관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글쓰기 지도에서는 이 겪은 일 쓰기 지도가 중요하다.

겪은 일 쓰기 지도는 아이들이 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잘 보고, 잘 듣고, 제 둘레의 사람과 사물들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제 삶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여 제 삶의 주인으로 살게 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힘, 자기의 표현과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공부이기도 하다. 바로 겪은 일 쓰기 지도는 제 삶의 주인으로 자라는 아이, 정확한 아이, 현명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데 큰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 4. 겪은 일 쓰기는 어떻게 쓸까?

(1)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잘 떠올려 가며 쓰면 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찌하였다.’는 여섯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써야한다. 이 여섯 가지 가운데 ‘어떻게’를 잘 밝혀 쓰는 것이 중요하다.

##### 방금 전 / 3학년 남

아까 글쓰기에 오면서 민철이와 싸웠다. 민철이와 치고 받고는 안 했는데 말싸움을 했다. 그런데 나는 혼자 싸우고 민철이는 둘이서 싸웠다. 쉽게 말하자면 2:1로 싸웠다. 나는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싸웠다. 그랬는데 개가 췌다. 눈물이 찔끔했다. ‘다음에는 사과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

##### 나쁜 친구들 / 오연주 (광남 2)

제가 언제 학교에서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남준이, 위정원, 지준상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정원이 “야! 말라빠진 오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집 앞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나 쓸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준이가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내가 발차기를 할 때 희문이가 오더니 나한테 “오~~ 연주네.” 하면서 개도 발차기를 하고나니 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일러서 혼을 내주기로 한 거였죠. (2000. 4. 20)

##### 개학 / 4학년 남

오늘은 개학날이다. 그런데 개학이면 특별대우를 해줘야지 오히려 찜통 속에서(운동장) 아예 훈련을 하고 있었다. 개학 첫날부터 지옥훈련을 받으니 진짜 짜증난다. 이번 개학식은 진짜 짜증난다. ‘개학 첫날부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짜증났다.

##### 덧붙이는 글)

##### 버려진 양심 / 2월 23일 화요일 / 4학년 여

화요일마다 우리 동네는 분주하다. 분리 수거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도 쓰레기를 주울 겸 밖으로 나왔다. 막상 쓰레기를 주우려고 하니 땅에 버려진 게 너무 많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담배꽂초와 껌종이 등을 버리다니...’ 우리는 지구를 보존하고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양심 없는 행동인가? 남 몰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나쁜 사람일뿐만 아니라

환경을 더럽혀 ‘자연 재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직 내 눈앞에 수많은 쓰레기들이 아른거린다. 후우,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다. 환경 보호를 하려는 사람만 힘들지….  
 이렇게 시간은 빨리 지나갔다. 비닐 봉지에 쓰레기가 가득찼다.  
 비오듯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흐뭇했다.  
 ‘역시 보람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거리를 보니 한결 깨끗해진 것 같다.  
 주운 쓰레기를 살펴보니 담배꽂초, 껌종이, 캔이 많았다.  
 이렇게 쓰레기를 거리에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다. 나는 커서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지!

(2) 중심을 정해서 써야 한다. 곧 알맹이가 있는 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학년 어린이들의 글은 있었던 일만 써도 재미있게 읽히는 경우가 많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글을 쓰면서 ‘내가 지금 이 글에서 무엇을 쓰려고 하지?’ 스스로 확인을 해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디를 다녀온 이야기나 어떤 행사를 치르고 쓰거나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쓸 때 더욱 그렇다.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 5학년 여**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이어서 어떤 호텔에 있는 뷔페를 갔다.  
 외국인들이 많았다.  
 우린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다.  
 ‘외국인들이 많은데…’  
 담배 냄새가 나고 웃음소리도 크게 들렸다.  
 그 사람들이 나간 후엔 좀 조용했다.  
 그 사람들이 앉은 자리엔 외국인들이 앉았다. 메뉴판을 소개해주는 아저씨의 발음은 정확하진 않았지만 잘 했다.  
 후식을 먹고 나서 우린 집으로 갔다. (2002. 5. 29)

(3) 겪은 일 쓰기는 사실을 객관의 자세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겪은 대로, 한 대로, 본 대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①지금 쓰려고 하는 일이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일을 다시 겪는 것처럼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려 내야 한다. ②또 본 것, 들은 것, 만지고 느껴 본 것들도 상투적인 말을 쓰지 말고 그 때 그 모양, 그 소리, 그 움직임, 그 느낌을 나타내는데 가장 알맞은 말을 써야 글이 살아난다. 그 때 그 일을 겪었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쓰면 좋다.

**선생님, 어학실, 우리반 / 이승재 (덕소 와부 5)**  
 오늘은 드디어 어학실을 가게 되었다. 오늘 막 지어가지고 우리 반이 제일 먼저 최초로 수업을 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기분이 좋으셔서 영어를 하지 않고 영화를 틀어주셨다. 우리는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보았다.  
 “딩동댕동 땡동댕동”  
 종이 울렸다. 우리 반은 평상시처럼 우르르르 하며 뛰쳐나갔다.  
 그런데 정재호라는 친구가 신발장 문을 모르고 쳐서 문짝이 떨어졌다. 헉!!! 문을 떼 낸 아이 곁에 있던 아이들은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다. 선생님은 이마를 쥐어뜯으시면서  
 “아이구 아이고…”  
 그러자 선생님은 우리들 보고 교실에서 손들고 있으라고 하셨다.

우리 반 아이들은 문짜를 때 낸 아이한테 욕설을 퍼부었다.

“너, 제 정신이 있는 거야?”

“너 이제 디졌다.”

“미친 놈아. 너 땀시 다 디지게 생겼어!”

이런 말을 마구 퍼부었다. 급기야 욕설을 받은 아이는 울었다.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불평을 늘어 놓으셨다.

“야, 이노무 시키들아! 너희들 바보야? 엉? 오늘 막 어학실 지어졌는데 어? 만든지 세 시간 돼 가지고 문짜를 뽀개 먹어? 그 전에도 선생님 물건 망가뜨린 사람들, 권오관! 기타줄, 5학년 초에 선생님 기타줄 끊어 먹어 가지고 너 여태 안 가져오고 있어. 그리고 유준상! 너 선생님 컴퓨터 깨먹었지? 이상미! 너 내 노트북에 커피 쏟았고, 너! 장구 구멍 났어. 정말 우리 반 뭐야? 이거? 이제 너희들 남은 일이 뭔지 알아? 이제 문짜 깨먹은 소문 짝 퍼지고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한테 아단맞고 교장선생님한테 지적 받는 거야. 엉?”

그러고는 선생님은 나가셨다.

우리가 급식을 먹는데 선생님이 오셨다.

“애들아, 짐 싸라.”

우리는 가방을 썼다.

그리고는 우릴 운동장에 나가게 해 주시더니 웃으시면서 우리와 발야구를 해주셨다.

한때는 무서우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와 놀아주시는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시다.

(2004.11.16)

**가을 풍경 / 4학년 여**

기대하던 추석.

용인 외할머니댁으로 향했다. 아빠 차로 씩씩 달리는 가을 길은 볼거리가 참 많았다. 누렇게 익은 벼. 참새를 놀래키는 허수아비, 길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코스모스는 너무나 흥겨웠다.

외할머니댁에서 놀다가 나와 보니 둥그런 보름달과 빛나는 별들이 하늘 높이 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밤을 따라 갔다. 샌달을 신고 가서 밤송이들이 나 여기 있다고 알리는 듯 내 발을 쿡쿡 찔렀다. 귀뚜라미들도 환영 노래를 불러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쉽고 섭섭했다.

덧붙이는 글)

**가을 풀벌레 소리 / 이슬기 (광남 2)**

나는 어제 밤에 우리집 앞에 풀밭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었다. 유동이랑 같이 걸어가다가 풀벌레 소리가 나니까 유동이 쳐다보다가 풀벌레 소리가 멈추니까 유동이 다시 걸어갔다.

나는 풀벌레 소리를 듣고 글쓰기 선생님에게 말해줄려고 했다. 풀벌레 소리는 신기하다. 오리처럼 ‘꼭꼭’ 거린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참 신기했다. (9. 18)

**가을 풀벌레 소리 / 이선정 (광남 2)**

어제 낮에 교회에 가려고 할 때 우리 아파트 옆에서 ‘푸르르르’ 소리를 들었다. 나는 신기해서 귀를 기울이니깐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다.

오늘 학교에서 오는데 또 ‘푸르르르’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무 반가웠다. 가을이 오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 (9. 18)

아파트 풀밭 옆을 걸으며 벌레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픽픽’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푸르르르’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네요.

**부침개 / 장세현 (서울 광남 3)**

글쓰기 선생님께서 호박, 부추, 양파를 넣어서 부침개를 해주셨다. 선생님이 상에 부침개를 놓으셨을 때 부침개가 지글지글 익고 있었다. 참 맛있게 보였다. 거기에다가 간장이 그냥 간장이 아니어서 참 맛이 있었다. 자주색에 약간 새콤한 맛이였다.

내가 유명한 부침개 집에서 맛있는 부침개를 먹은 것 같았다. (2002. 4. 29, 비)

**생밤 / 이상호 (서울 광남 2)**

생밤은 진짜 맛있다. 안은 상아색이고 속껍질은 갈색이다. 털 같은 게 있다. 조금 딱딱하면서 맛있다. 처음에는 단물이 나와 맛있는데 나중엔 단물이 안 나와 맛이 없어진다. 생밤은 자꾸자꾸 씹히고 목에 잘 안 넘어간다. 씹힐 때 툭 소리하고 뿌드득 소리가 난다. 그리고 까기가 정말 어렵다. 아주 나중엔 짹짹 소리가 난다. 밤이 안 넘어 가는 게 내 목구멍이 작은 것일까? (2002. 11. 22)

(4) 설명하지 말고 그려 보이도록 한다.

**햄스터가 죽었다 / 박정미 (광남 3)**

우리 집에서 햄스터 두 마리를 키웠다. 그런데 오늘 햄스터 한 마리가 죽었다. 왜 죽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너무 불쌍했다. 이빨을 내밀고 다리는 쪽 뺀고 죽었다. 어찌나 불쌍한지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이게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유리창으로 보니까 비가 쏟아졌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햄스터가 한쪽 눈을 뜨고 죽어 있었다. 그것을 보니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햄스터가 죽은 것은 내 동생이 맨날 놀라게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 것 같다. 나도 생명이 있는 곤충이나 동물들을 징그러럽다고 죽이지 말아야겠다. (98. 5. 10)

**동물 움직임 흉내 내기 / 이종호 (광남 1)**

우리는 3교시부터 즐거운 생활, 동물 움직임으로 이동하기를 했다. 개구리 흉내를 했는데 개구리는 내가 제일 잘 했고, 공은 소나무와 내가 잘 했다.

개구리 흉내를 낼 때 다리를 접고 팔을 펴고 뺨을 공기를 넣어서 뼈끔뼈끔 “깨끔깨끔” 했다. 흥서희가

“너, 그거 황소개구리 같다.”

그래서 내가

“참 개구리야.”

말했다.

공은 팔목에 힘을 빼고 어슬렁 어슬렁거렸다. (98. 9. 14)

(5) 한 말, 들은 말, 주고 받은 말도 그대로 쓴다.

**병아리/ 김수진 (광남 2)**

오늘 학교 앞에 병아리 장사가 있었다.

“아줌마, 얼마에여?”

“1000원”  
 ‘만원이 있으니까 2천 원만 써야지.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일단 가 보자.’  
 “엄마, 병아리 사도 돼?”  
 “안 돼. 동물 중에서 병아리가 제일 싫어. 그러니까 안 돼.”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응? 알았지?”  
 “안 돼.”  
 “병아리 기르는 게 숙제야.”  
 “알림장 가져와 봐.”  
 나는 방으로 가서 알림장을 꺼내 빨리 써서 가지고 갔다.  
 “너 지금 썼지?”  
 “네”  
 “지금 쓴 거 다 알아.”  
 그래서 병아리를 사지 못했다. (2001. 3. 5)

### 덧붙이는 글)

\* 만약 이 글을 주고 받은 말이 아닌 이렇게 풀어서 썼다면 어땠을까?

엄마에게 병아리 사도 되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엄마는 안 된다고 하셨다. 엄마는 동물 중에서도 병아리가 제일 싫다고 했다. 그래도 나는 계속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즐겼다. 그래도 안된다고 해서 나는 진짜 짜증이 났다. 그러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 주고 받은 말을 그대로 쓰라 할 때 교사들이 기억해두어야 할 점

### 엄마가 날 때렸다 / 3학년 여

오늘 같이 엄마가 우락부락 생겼는지 모른다. 엄마가 날 때려서 그럴까?

내가 너무 화나 소리를 지르면서 영화박물관에(방학 숙제) 대해 안 한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 “이리 와”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 머리를 2방 때리고 내 방을 나갔다. 난 문을 광하고 닫고 울었다. 엄마가 하는 말을 다 똑똑히 들었다.

“저년이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이 말이었다. 내가 잘못했지만 이년 저년 그러는 건 더 싫었다. 엄마 때리다가 30분 뒤엔 “기분 풀어~” 그리고 기분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그럼 다 풀렸지?”하고 이상하다. 그때가 점심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밥을 먹지 않았다. 엄마한테 밥먹었다고 하고 말이다. 내가 잘못해서 때린 건 그리 기분 나쁘지 않다. 이년 저년이 듣기 싫었다. 그리고 30분 뒤쯤에 마음이 풀렸다.

정말 정말 그땐 배고팠다. (1999. 8. 25. 일기)

\* 또 한 가지, 대화글을 쓰는 방법: 인용절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과 줄을 바꿔가면서 직접 인용해서 쓰는 방법

나는 엄마에게 “엄마, 병아리 사도 돼.”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엄마는 “안돼. 동물 중에서 병아리가 제일 싫어. 그러니까 안돼.”라고 말했다.

\* 모든 글에 주고받은 말 쓰기 방법으로만 쓰는 저학년 아이들은?

### 덧붙이기) : 사생글 쓰기

\* 대화글 쓰기와 함께 글을 더 생생하게 하는 방법: 눈으로 보고 그림 그리듯 쓰는 사생글 쓰기

이 사생글은 이 글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글의 갈래는 아니지만 어떤 대상을 좀더 꼼꼼하게 보게 하고 정확하게 자기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힘을 기르게 한다.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물건이나 사람 (친구 선생님) 모습 그리기가 있고, 밖에 나가서 쓰는 경우에는 돌레를 돌아보다 자기 마음이 닿는 장면을 찾아 눈으로 보면서 쓰면 된다. 곤충, 나무 꽃, 하늘, 일하는 또는 놀고 있는 사람들, 움직이는 장면 무엇이나 될 수 있다. 이 공부하는 사물을 자세하게 보게 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는 힘을 길러주고, 돌레의 사물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연의 변화나 모습들에 관심을 갖게 해준다. 또 자세하게 보고 정확히 쓰면서 사물이나 삶의 깊이를 새롭게 깨닫게도 된다.

담쟁이는 아래서부터 슬슬 올라와서 벽 같은데 딱딱 문어같이 붙어있다. (장세현 / 3학년)

맨드라미는 꽃이 뭉쳐 있어 앞에서 보면 부채 모양처럼 생겼다. 앞은 길쭉하며 줄무늬가 있다. 꽃은 우리 어머니 파마한 머리처럼 생겼고, 만져보니 털이 있고 두껍기 때문에 담요처럼 느껴진다. (임유화 / 3학년)

### 놀이터 / 육창현 3학년

열 세 명의 아이가 있다. 그네타기, 소꿉놀이, 모래놀이를 하고 있다. 그네를 타던 아이들이 미끄럼틀로 올라가고 그네는 힘없이 흔들리고 있다.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웃으며 논다. 그런데 내가 아는 형은 하는 일없이 심심하게 그냥 있다. 뭐 하러 온 것인지를 모르겠다. 이번에는 텅 비어있는 그네를 보고만 있다.

(6) 한 일만 쓰지 말고 보고 듣고 느낀 것도 쓴다.

### 싸움 / 오민경 (광남 2)

지난 토요일에 중곡동 할아버지 집에 갔다. 할아버지가 모 사줄게 있다고 해서 문구점에 가서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뚱뚱한 아저씨와 날씬한 아저씨가 싸우고 있었다. 뚱뚱한 아저씨가 주먹질을 푹푹 하려고 하니까 부인이 “그만해요. 그만해요.”하면서 아저씨 팔을 붙잡았다. 아저씨는 화가 엄청나서 “너 맞을래. 너 맞을래.”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날씬한 아저씨는 경찰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뚱뚱한 아저씨는 웃옷을 벗고 “야 이자식아” 했는데 배가 엄청 나와서 바지가 벗겨지려고 해서 얼른 바지를 위로 올렸다. 날씬한 아저씨 차 앞 번호판을 똑 떼어서 옆에 서있는 트럭에다 놓았는데 좀 있다가 트럭이 가버렸다.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맨 앞에서 다 보았다. (2001. 6. 18)

### 헬기 사고 / 김문선 (광남 6)

며칠 전부터 헬기가 이상한 커다란 것을 매달고 다녔다. 그 때마다 항상 한강에 있는 올림픽대교 쪽으로 갔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우리는 바로 어제 그 사실을 무서운 사고와 함께 알게 되었다.

그것은 올림픽을 기념하는 장식품이었다. 올림픽 대교 가운데에 있는 조형탑 위에 불(성화)모양 작품을 올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 몇 일 동안 위에 놓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놀기로 한 날이었나 보다. 어제 헬기 조종사가 그 작품을 받침대에 놓고 줄을 풀려고 밑으로 좀 내려왔다. 그런데 줄이 엉켜 있어서 풀리질 않았다. 좀 더 내려왔다. 그 때였다. 펑 푸식푸식~~!!!

헬기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앞 프로펠러가 작품에 걸린 것이다. 그리고는 철줄에 또 부딪치고 내려오면서 헬기가 반으로 쪼개졌다. 한 쪽은 강에 빠지고 한 쪽은 다리에 떨어졌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세 사람이 모두 죽었다.

그런 위험하고 쓸데없는 일을 왜 했을까?

우리 아빠는 어제 그 이야기를 뉴스로 보면서

“어휴~ 한심해라. 올림픽이 끝난 지 언젠데 저런 걸 해? 어? 진짜! 끝난 지 13년이나 됐는데 원 기념을 한다고 저 난리야. 잘~한다. 잘 해~ 잘 돼 가는 것이다.”

내 생각에도 저런 건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목숨을 잃은 세 명의 군인 아저씨들 가족은 얼마나 슬플까. 다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2001. 5. 30)

## 5. 아이들 마음 읽어주기

**글쓰기 교실에 왔다 / 현진환 (광남 1)**

오늘 글쓰기에 처음 왔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신이 나서 올 때 엄마랑 뛰어왔다. 엄마랑 누나랑 나랑 있었는데 내가 빨리 가자고 졸랐다.

엄마가 그래서 쯤만 기다리라 그랬다. 그래서 엄마아고 나만 글쓰기에 왔다. 근데 누나만 책보고 사람들 끝날 때까지 기다려는데 그런데 내가 걱정이 됐다. 외냐면 치과에서 누나가 무서워서 울가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다음에 누나아고 나와서 구경할 거다. 엄마두 이젠 누나 치과 끝나면 엄마가 잘 하나 못타나 엄마두 구경할 거다.

아빠두 엄마 끝나면 아빠두 할꺼니깐 아빠두 잘 하나 못타나 구경할 거다.

할머니두 아빠 끝나면 하니깐 잘 하나 못타나 구경할 거다.

할아버지도 할머니 끝나면 할아버지도 할꺼니깐 할아버지도 못타나 잘 하나 구경할 거다.

외할머니도 못타나 잘 하나 구경할 거다. 그리고 할머니 끝나고 외할아버지도 할꺼니깐 할아버지도 못타나 잘 하나 구경할 거다. (2000. 10. 2)

## 6. 삶을 구체로 쓰는 힘, 그 기쁨 - 정직한 글에서 가치 있는 글로

글쓰기 공부를 시작하면 대체로 겪은 일 쓰기 공부부터 한다. 이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은 둘레의 세상에 새롭게 눈이 뜨이고 자기 삶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순간순간 그 자리, 그 일을 떠올려 그대로 글을 쓰면서 그 순간 그 일이 이 아이 가슴에서 환한 빛이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드라마 찍는 기분 / 고혜수 (광남 2)**

일요일에 아빠와 깡슈가 산책을 나갔다. 나는 아빠를 빨리 따라갔다. 아빠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아빠가 계단으로 올라왔나 보다. 나는 한참 아빠를 찾았다. 내가 가다가 조금 천천히 가는데 위에서 벚꽃이 떨어졌다. 그리고 옆에 비둘기가 지나가고 또 바람이 솔솔 불었다. 나는 드라마 찍는 기분이었다. (2004. 4. 12)

**밤에 있었던 이야기 / 김채윤 (광남 2)**

어제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세수를 한 번 하고서 나왔다.

그런데 나오니까 어떤 꼬마아가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난 깜짝 놀라서 볼을 켜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동생이었다. 안심하고 말하였다.

“건호야, 무슨 일 있니?”

건호가 무서운 표정으로 말하였다.

“누나, 나 건호인데 나 물 좀 주면 안 돼?”

“알았어. 누나가 물 떠다가 건호 줄게.”

난 안심을 하고서 물을 떠다가 동생한테 갖다 주면서 물었다.

“건호야! 그런데 왜 누나한테 와서 물을 달라고 했니? 엄마랑 아빠 아니면 건호가 직접 떠먹으면 되잖아.”

건호가 울쌍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누나가 물 떠다 주는 게 더 좋아.”

난 옆으로 돌아서 “씩”하고 웃었다. 그래서 건호도 덩달아 웃었다. 그러다가 웃음이 커졌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깨셨다. 내 방으로 들어와서 엄마 아빠 동시에

“너들 머 하는 거니?”

우리가 말하였다.

“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답하였다. (2004. 11. 15)

다음 글은 글쓰기 공부를 두 달째 하고 있는 4학년 남자아이 글이다. 그저 평범하다면 평범한, 모자라는 것 없이 자라는 도시아이다. 그렇지만 아이 마음에는 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모자라서 일기는 늘 대여섯 줄이면 할 말 다 했다던 아이다.

**나 신데렐라 됐다 / 박정진 (광남 4)**

학교 4교시 영어시간에 신데렐라 영어연극을 한다 했다. 하필이면 내가 신데렐라였다. 그리고 신데렐라에서 새엄마 역을 맡은 애한테 “엄마”라고 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들이 웃었다.

영어연극이 드디어 시작됐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왜냐하면 대사를 잊어먹을 것 같아서였다. 드디어 우리 모듬 차례였다. 새엄마, 두 언니들이 무도회에 갔다. 그 다음 나는 “으아앙”하고 울었다. 애들이 마구 웃었다. 그리고 요정이 간 뒤 왕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도 바꾸어 느끼하게 “oh, so beautiful!” 나는 느끼했다.

연극이 끝나고 나는 모듬애들한테 이렇게 말했다.

“나 이제부터 신데렐라 역 안 할래.”

“그냥 해. 너 울 때 짱이야.”

친구들이 말했다.

나중에 선생님이 우리 모듬한테 +1하라고 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신데렐라 역 잘 했다고 칭찬을 했다. 신데렐라도 뭐 나쁘지 않다. (2005. 6. 14)

**신데렐라, 꿈은 이루어진다 / 박정진 (광남 4)**

오늘도 또 신데렐라 영어연극을 한다고 했다. 대사를 바꿔야 하는데 모듬 대장이 대사를 바꾸지 말자고 했다. 그런데 모듬 대장하고 이어진이 대사를 몰래 만들었다. 거기에는 하필이면 왕자하고 신데렐라가 결혼하는 대사가 있었다. 나는 공주가 안될려고 “요정, 요정, 나 요정할래.” 이랬다. 그랬더니 예전이랑 똑같이 하자고 했다. 나는 그 때 대사를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 왕자가 결혼하자고 하면

“오우 케이”라고 말해야 된다. 왕자를 맡은 김성현하고 나는 무조건 큰 목소리로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이랬다. 그랬더니 여자애들은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이랬다. 거기에다가 또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애까지 “된다, 된다, 된다.” 이랬다. 지금 생각해도 그 때를 생각하기도 싫다.

영어연극이 시작됐다. 나는 할 수없이 대사대로 말했다. 정말 싫었다. 영어연극이 끝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신데렐라 연극, 비극은 어디까지냐?’

나는 다음에 또 신데렐라 연극을 할까봐 미리 애들한테 “나, 새엄마라도 할 테니 절대 신데렐라 시키지 마.” 이랬다. (2005. 6. 21)

제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레의 사람과 자연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공부, 처음에는 쓰고 싶은 이야기를 정직하게 마음껏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른 삶을 담아내는 가치 있는 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을 가꾸는 글쓰기’ 공부이다.